

OECD Forum 2013 참석

- 이건우 선임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센터)

1. 출장 개요

(1) 출장자 : 이건우 선임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센터)

(2) 출장기간 : 2013년 5월 27일(월) ~ 5월 31일(금)

(3) 출장지역 : 프랑스 파리

(4) 출장목적

○ 5월 28~29일의 양일 간 OECD가 개최하는 'OECD Forum 2013'에 참가

- 금년 OECD Forum의 주요 주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성취하기 위한 1)Promoting inclusive growth and addressing inequalities, 2)Rebuilding trust in the system, 3)Fostering sustainability의 세 부분으로 구성

- 특히 금년 OECD Forum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및 부가가치 무역(Trade in Value Added) 등과 관련된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 이들 이슈와 관련된 최근의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파악

(5) 세부 출장일정

	주요 일정
5.27(월)	인천 출발 → 파리 도착
5.28(화)	OECD Forum 1일차 세션
5.29(수)	OECD Forum 2일차 세션
5.30(목)	파리 출발
5.31(금)	인천 도착

2. 출장 내용

□ OECD Forum 2013 개요

- OECD Forum은 매년 5월에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Ministrial Council Meeting) 개최시기에 맞추어, 각 회원국의 각료, CEO, 비정부기구 및 노동조합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연구자 및 저널리스트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포럼임.

- OECD Forum은 2000년에 1차 포럼이 개최된 이후 금년이 14번째 포럼임.

- OECD Forum에서 다루는 주제는 매년 중요한 세계경제 이슈를 반영하여 정하게 되는데, 과거 1~13차 포럼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 2012 : "Policies for Inclusive Growth and Jobs"

- 2011 :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
 - 2010 : "Road to Recovery: Innovation, Jobs & Clean Growth"
 - 2009 : "The Crisis and Beyond: For a stronger, cleaner, fairer economy"
 - 2008 : "Climate Change, Growth and Stability"
 - 2007 : "Innovation, Growth and Equity"
 - 2006 : "Balancing Globalisation"
 - 2005 : "Fuelling the Future"
 - 2004 : "Health of Nations"
 - 2003 : "Grow, Develop and Prosper"
 - 2002 : "Taking Care of the Fundamentals: Security, Equity, Education and Growth"
 - 2001 :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New Economy"
 - 2000 : "Partnerships in the New Economy"
- 금년의 OECD Forum 2013은 "일자리, 평등, 신뢰 (Jobs, Equality, Trust)"라는 주제로 2013년 5월 28~29일 양일 간 OECD Conference Centre에서 개최
- 포럼의 1일차 세션에서는 현재 중요한 경제·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문제, 21세기 생산혁명,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중산층, 실업, 긴축 vs. 성장, 부가가치 무역(Trade in Value Added), 2일차 세션에서는 불평등 문제, 조세, 아프리카, enterprising state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각국 전문가들이 발표
 - 이러한 발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성취하기 위한 포용 성장(inclusive growth) 및 불평등(inequality) 완화, 시스템의 신뢰(trust) 재구축,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제고 등을 위한 방안에 관해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

- 또한 포럼에서는 2011년 처음 공개된 이후 계속해서 보완하여 온 'OECD Better Life Index ver. 3.0'과 OECD의 2013년 세계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도 함께 발표
- 포럼의 세부 프로그램 및 발표자는 OECD Forum 2013의 공식 웹 페이지(<http://www.oecd.org/forum/programme/>) 참조

□ 포럼 주제 -일자리, 평등, 신뢰(Jobs, Equality, Trust)-의 선정 배경

(Promoting Inclusive Growth)

-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세계 각국은 2억 명에 달하는 실업자와 청년실업 문제, 불평등 확대,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
- 경제위기는 경제 및 사회의 건강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
 - 물론 위기 이전에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으며, GDP라는 척도의 한계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식
 - OECD Better Life Initiative와 Better Life Index과 같은 프로젝트,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다양한 행복 및 복지관련 지수 등이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그 유용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 경제성장의 과실이 자동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경제·사회적 정책결정에 있어서 새로운 포용적 접근(inclusive approach)의 필요성을 제기
 - 포용성장은 전체 자원, 청년과 고령자, 남성과 여성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을 의미

- 노동시장,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기회와 포용성을 극대화하도록 운영될 필요
- 국제적 레벨에서 보면, 무역의 흐름을 측정하는 현재의 시스템 또한 재고될 필요
 - 세계화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많은 국가로부터 수백 개의 부품을 조달하고 다수 장소에서 조립하는 자동차나 모바일 폰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위기 이후 작업을 개시한 OECD는 WTO와 함께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를 금년 1월에 공표
 - 어느 국가가 어느 국가에 가장 큰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는지, 누가 어디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에 커다란 변화
- 조세분야도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글로벌한 현실과 부합되지 못하는 분야 중의 하나임.
 - 기업의 국외활동에 대한 현재의 과세제도는 세계화 이전단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업의 동일수입에 대해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
 - 그러나 세계화 과정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더 이상 적합하지 못한 시스템으로 전락하였으며, 지금은 어느 쪽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정 반대의 이슈가 대두

(Rebuilding Trust)

- 정부나 기업, 미디어에 대한 불신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현재의 불신은 경기후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기업의 탐욕과 잘못된 경영이 금융 및 경제위기의 초기 원인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잘못된 대응 또한 불신의 대상
 - 은행의 이자율 조작,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식품 제조업체들의 성분 기만 등이 신뢰를 파괴하고 불신을 심화시켰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너무 관대하고 안일한 경향
 - 기업의 일차적 책임은 주주에게 있으므로 세금을 덜 내고 배당을 늘릴 수 있다면 기업은 법이 허용하는 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 → 합법적이지만 여타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인식
 -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일컫는 일반적 용어로서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이윤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킴으로써 국내 과세기반을 축소시킨다는 의미로 사용

(Fostering Sustainability)

- 2007년의 금융위기가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은, 어린이들은 그들의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가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게 된 것임.
 - 2011년의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에서 OECD는 지난 50여 년간 실현한 생활수준 향상에 종지부를 찍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 및 소비방식’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고

- 생물다양성의 감소, 전 세계적인 평균기온 상승, 빈부격차 확대, 수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과소비, 주요 광물자원의 고갈, 국가부채 위기, 청년실업, 비만과 반건강 등 수많은 분야에서 경고음이 발생
- 따라서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

(Better Life Index)

- 경제 및 금융위기는 GDP와 경제통계로 측정할 수 없는 ‘보다 나은 삶(Better Life)’에 대해 관심을 다시 돌리는 계기가 되었음.
 - 경제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성장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임.
 - OECD는 10년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프랑스의 ‘Stiglitz-Sen-Fitoussi Commission’, 그리고 영국의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프로그램도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
 -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는 2011년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복지수인 ‘Better Life Index’를 일반에게 공개하였는데, 동 지수는 맑은 공기와 교육, 소득, 건강 등 GDP를 통해 측정할 수 없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11개 요인들을 반영하여 지수화
 - 2012년 5월에 개최된 제13차 OECD Forum에서의 Better Life Index Ver. 2.0에 이어 금년 Forum에서는 최근 통계 및 국별 데이터, 스페인어 번역 등을 보완한 Better Life Index 3.0을 발표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 Interconnected Economies: Benefiting from Global Value Chains

- OECD의 Andrew Wyckoff 국장(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이 발제한 “The 21st Century Production Revolution”의 주요 내용을 OECD의 최근보고서인 “Interconnected Economies: Benefiting from Global Value Chains (Preliminary Version)”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오늘날 성장과 고용을 위해서는 “what you sell”(최종제품)보다는 “what you do”(기업이나 국가가 관계하는 활동)가 보다 중요
 - GVCs는 기업이나 국가경제로 하여금 전체부문을 발전시키지 않고도 외부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이용하여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생산과정의 일부분을 “do” 할 수 있게 함.
 - GVCs는 국가경쟁력과 무역 및 투자패턴에 영향을 주고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리스크 증가를 의미
 -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의 증가는 중요한 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과제도 제기

(Competitiveness)

- GVCs 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정성이 있고 국경을 이동할 수 없는 생산요소들을 강화할 필요
 - 이는 산·학 연계와 여타 암묵지의 강화, 인적자본과 스킬, 높은 질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을 의미
-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출능력뿐 아니라 높은 질의 중간투입재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도 매우 중요

- 아웃소싱과 오프쇼어링은 보다 저렴하면서 차별화되고 질이 높은 중간투입재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
- 제조업은 GVCs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분야이지만 서비스산업 또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등장
- SMEs도 GVCs의 니치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업 수출에 공헌하고 있으므로 SMEs의 혁신능력 배양과 제품표준화 촉진 등을 통해 SMEs와 국제적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

(Trade)

-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만 및 통관절차 등 무역촉진을 위한 조치들은 가치사슬의 원활한 작동에 도움
 -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간재 수입의 약 1/3이 수출 생산에 사용
 - 따라서 GVCs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수입장벽은 수출품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며, 수출제한 또한 GVCs의 효율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무역보호조치의 부정적 효과는 부품이나 중간재가 국경을 여러 번 이동할수록 증첩되는 효과
- 새로운 무역기회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관세 폐지는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GVCs는 효율적인 서비스 및 사람·자본·기술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할 필요
 - 서비스는 이미 OECD 회원국 GVCs 가치 창출의 50% 이상을 담당 (중국의 경우 30% 이상)

- 서비스부문에서의 규제개혁과 무역·투자의 자유화는 경쟁을 촉진시키고 생산성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

(Investment)

- 투자정책은 해당산업 자체보다는 GVCs 내 각각의 활동에 대해 밀접하게 초점을 맞출 필요

- 또 GVCs의 성공은 대내 및 대외투자 양방의 진흥과 촉진에 의존

- GVCs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투자장벽을 낮추는 것은 다수국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경 간 투자장벽은 GVCs의 효율적인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후생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

- 각국 정부들은 다자간 투자시스템이 계속해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

- 기존의 수많은 양자 및 다자간 투자협정들은 GVCs 내에서의 경제 간 상호연계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한계

- 각국 정부는 GVCs 내에서의 고부가가치 단계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전쟁에 뛰어 들어서는 안 되며,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 투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

(Adjustment and risks)

- GVCs에의 참여는, 특정 활동의 증가와 감소, 국가 간 재배치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조정비용을 수반하게 됨.

- 노동시장과 사회정책, 교육 및 스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정과정

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 구조정책은 경제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

- 경제의 상호연계성 증가는 회복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어떠한 GVC 내 부분적인 문제의 발생이 시스템 전체로 확대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
 - 이러한 위험을 다루는 일차적 책임은 기업들에게 있지만 정부를 포함하는 다자적 접근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역량 구축을 지원할 필요
 - 보다 큰 규모의 국제 협력은 국내정책과 경제활동의 글로벌한 성격을 조화시키는데 도움
 - GVCs에 있어서의 투자의 역할을 측정하거나 GVCs가 고용이나 숙련기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

□ Trade in Value-Added

- OECD의 Ken Ash 국장(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이 발제한 'Trade in Value Added: The World Factory'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금년 5월에 공개된 OECD-WTO Trade in Value-Added database는 지난 1월에 공개된 40개국(OECD 34개 회원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연방 및 남아프리카) 외에 16개국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1995, 2000년 통계 포함)
- 생산의 국제적인 분화는 지난 2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
 - 상대적으로 개방되고 자유로운 무역제도, 높은 외국인투자 비율을

가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수출에 체화된 수입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글로벌 가치사슬(GVCs)에 대한 일국의 통합이나 특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
 - 경제규모가 크거나 부존자원이 많은 국가, 해외시장이나 공급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 그리고 서비스산업에 특화하고 있는 국가들은 소규모 경제에 비해 수출에 체화된 수입품의 비중이 작은 경향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GVCs에 빠르게 통합되어 오고 있는데, 중국 수출에 체화된 수입품의 비중은 전자부품의 조립가공 분야 특화에 힘입어 1995년 12%에서 2009년 1/3로 증가
 -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수출에 체화된 수입의 비중은 같은 기간 2배로 증가하여 2009년 각각 41%와 15%를 기록
 -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자국내 부가가치의 비중도 가치사슬 상의 위치 이동을 반영하여 2005~2009년 기간 중 상승
- 중간재 무역의 증가에 따른 생산의 국제적인 분화에 따라 걸쭉으로 드러난 총무역 통계는 무역의 흐름에 대한 해석을 왜곡시킬 가능성
- 총무역 통계는 인접국 경제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가치사슬 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
 - 총액기준으로 보면 2009년 한국 수출의 28%가 대중국 수출이었으나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14% 만이 중국의 최종소비를 위해 수출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제3국 수출을 위한 가공용 중간재의 수출

○ 부가가치 무역 통계는 최종목적지 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중국소비자를 향한 2009년 일본과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은 1995년에 비해 2~3배 증가한 반면, 최종시장으로서의 일본의 중요성은 최근 일본경제의 부진을 반영하여 감소

- 미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의 비중은 1995년 각각 2.3%, 12.7%에서 2009년 각각 6.2%와 6.8%로 변화

- 총무역 기준으로 보면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1995년 2.5%에서 2009년 9.4%로 증가(미국 10.6%, 독일 8.4%)하였으나, 부가가치 무역 기준으로 보면 2.8%에서 8.3%로 증가(미국 11.8%, 독일 8.0%)

- 한국은 2009년 총무역 기준 세계 8위에서 부가가치 기준 11위로 하락

○ 국제경쟁력이 중간재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는 점차 증가

- GVCs 하에서 생산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중간재 수입이 필수적

- 수출의 수입중간재 의존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수송장비 부문에서의 수출의 수입중간재 의존도는 매우 높고 빠르게 증가(1995~2009년 간 독일과 프랑스는 거의 2배로 증가)

- 전자기기 산업의 경우 수출의 수입중간재 의존도는 같은 기간 중국이 3배, 헝가리, 한국, 인도, 일본은 2배 정도로 증가

- 대부분의 경제에서 수출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수입중간재의 비

율은 약 1/3정도이나 일부 부문이나 국가의 경우 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예를 들어 헝가리, 중국, 한국, 멕시코의 경우 전자제품 총 중간재 수입의 약 3/4이 수출품 생산에 사용
- 경제규모가 클수록 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본의 경우조차도 수송장비 총 중간재수입의 40%가 수출품 생산에 사용

○ 효율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도 경쟁력에 영향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서비스산업은 GDP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비스무역은 총액기준으로 전체무역의 1/4 미만에 불과
- 그러나 제품생산 과정에서 서비스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부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총수출의 50% 이상 기여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약 1/3을 기여
- 또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국내 및 해외서비스 공급자의 기여도는 2009년 약 1/3정도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서비스의 기여도는 1995년보다 5~10% 상승
- 예를 들어 수송장비 부문의 경우 수출에 체화된 서비스의 비중은 많은 국가에서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송장비 부문에서의 지식집약도(디자인, R&D, 소프트웨어 등) 증가를 반영
-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조차도 지식활동 등을 포함하는 기업내 서비스(in-house service)가 아닌, 서비스부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매한 부가가치만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부문의 역할과 지식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아님.

□ OECD Economic Outlook

- OECD 사무총장인 Angel Guria와 부사무총장인 Pier Carlo Padoan 이 발표한 '2013년 OECD 세계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글로벌 경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속도가 고르지 못하여 국가 간 또는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일 전망
 - 세계 전체의 실질 GDP는 금년에 3.1%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14년에는 4% 증가할 전망
 - 2012년 11월의 전망치에 비해 금년과 내년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3%p, 0.2%p 하향 조정
 - OECD 회원국의 GDP는 금년에 1.2%를 기록한 후 2014년에는 2.3%로 회복될 전망이며, 비 OECD 회원국의 경우에는 금년과 2014년에 각각 5.5%와 6.2% 증가할 전망
 - 미국의 GDP는 금년에 1.9%를 기록한 후 2014년에는 2.8%까지 회복될 전망이며, 유로지역의 GDP는 금년에 0.6% 감소한 후 내년에는 1.1%로 회복될 전망
 - 일본의 GDP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6%와 1.4% 증가할 전망

OECD의 경제성장 전망

(실질 GDP 기준)

	2011	2012	2013	2014
United States	1.8	2.2	1.9	2.8
Euro area	1.5	-0.5	-0.6	1.1
Japan	-0.6	2.0	1.6	1.4
Total OECD	1.9	1.4	1.2	2.3
World	3.7	3.0	3.1	4.0

- OECD 사무총장 Angel Gurría도, 글로벌 경제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회복력이 약하고 불균등할 것으로 예측
 - 경기부양적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여건의 개선, 점진적인 신뢰 회복 등이 회복의 불씨가 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
 - 일부 국가들은 정부부채/GDP 비율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부채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

- 경기하방 위험은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유로지역의 경우 자본력이 약한 은행과 정부재정, 그리고 실물경제 간의 역 작용이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존재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이 부재함에 따라 재정 불안이 존재
 - 예외적 통화정책을 미래에 철회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현재 추정하고 있는 수준 이하로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질 위험도 존재

- 정부정책은, 성장률의 제고, 유지가능하면서 성장친화적인 재정,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개혁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유럽의 경우 보다 빠르고 강하며 유지 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 및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단호하고 대담한 조치가 필요

- 완전한 형태의 은행동맹(banking union) 건설에도 속도를 낼 필요
- OECD는 이미 다수 국가들에게서 위험 수준까지 높아져 있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각국 정부들이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
- 일부 OECD 회원국의 경우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필요
- 미국과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은 향후 2년 동안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며,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여 2014년에는 12% 이상 수준에서 안정화될 전망
- 특히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순환적인 실업이 구조적인 실업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조정해나갈 필요
- 또한 보다 광범위한 제품시장의 개혁, 특히 소매유통 및 전문서비스 분야에서의 개혁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한편, 'OECD 세계경제전망' 발표와 토론이 끝난 직후 SMS를 이용하여 청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신의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8%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안일하고 잘못된 대응이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인과 CEO, 기업,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